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23(土)	24(日)
	
구름 조금 0/4℃	구름 많음 -3/7℃

News

- 전남 외국인 땅 늘었다 ②
- 승례문 설계 최종완성 ③
- 오늘 숙명의 한·일전 18

Books

- 한국사회 희망찾기 14

Entertainment



- 드라마 '온 에어' '스포츠' ⑧
- 광주 출신 배우 박철민 ⑨

Wellbeing

- 식품 탐구-결명자 13



유망직업 전망 56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www.nabudd.ac.kr

세상을 달아나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www.jnsc.ac.kr

유기농 녹차 생산 보성 청룡다원 대표 최창돈씨



최근 미국 FDA의 식품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한 최창돈 보성 청룡다원 대표가 검사를 의뢰했던 제품인 '세작' 잎녹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헌주기자 ahj@kwangju.co.kr

12년 고집, 美 FDA 인증 따냈다

(식품의약품)

'세작' 중금속·잔류농약 테스트 합격점 우리고장 친환경 녹차 세계 명품 '우뚝'

"유기농에 대한 12년 고집을 FDA(미국 식품의약품)에서도 인정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 녹차가 농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보성 녹차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美 FDA 식품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했다. 보성군 보성읍 원봉리에서 유기농 녹차를 생산하고 있는 최창돈(63) 청룡다원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최 대표는 최근 FDA로부터 반가운 우편물 하나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FDA에 보낸 녹차 완제품의 식품안전성 테스트가 모두 통과했음을 알리는 공식 문서였다. 문서는 '세작(세 번째 따 잎을 말린 녹차)'에 대한 중금속(9가지)·잔류농약(28가지) 테스트 결과 모든 항목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인정해줬다. 영양분 검사에서도 녹차 100g당 칼슘 58mg, 비타민 C 1.74mg, 나트륨 0.24mg 등 함유로 고급 녹차로서 합격점을 받았다. '잎녹차' 형태로 FDA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것은 전국적으로도 드문 경우다. 다른 녹차 농가는 물론, 아내까지도 유기

농법을 말할 정도로 힘들게 녹차밭을 일구 왔기에 검사 결과를 받아본 최 대표의 감회는 남다른 수밖에 없었다. "진짜 농사꾼이었다면 유기농법은 꿈도 못 꾀는 겁니다. 제조제 10만원어치만 쓰면 될 것을, 김매기에만 한 해 1천만원 가까이 쏟아부었죠.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최 대표는 30여년을 교육자이자 산(山) 사람으로 살아왔다. 지난 2004년 광주 석산고 교감을 끝으로 명예퇴직을 하고 평소 꿈을 키워오던 농부의 길을 택했다. 녹차밭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땅을 놀리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퇴직하기 8년 전부터 일구었다. 고직생활 중에는 수많은 산을 오르기도 했다. 일반 산행뿐만 아니라 암벽·빙벽에다 해의원정 10여 차례까지 다녀온 전문 산악인이다. 그의 말마따나 작물을 키워 먹고살아야 하는 농사꾼이었다면, 또 자연을 사랑하는 산사람의 고집이 없었더라면 유기농 재배는 어려웠을 것이다. 유기농법으로 녹차를

재배하면 관행농법에 비해 생산량이 2~3배가량 줄어드는 만큼 많은 시간과 비용의 투자가 뒤따라야 하지만 농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도 최 대표는 한 방울의 농약과 제초제도 쓰지 않았다. 그의 고집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은 불과 3년 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직후부터다. 마을에서 퍼진 입소문으로 인해 단골손님도 많아졌다. 심지어 여러 녹차밭에서 품을 팔던 동네 이주머니들도 자식들에게 줄 녹차만을 최 대표에게 사갈 정도였다. 그것도 잠시, 지난해 보성지역 일부 녹차밭에 농약을 살포하는 장면이 언론을 타면서 보성녹차 구매자들이 많이 줄었다. 이 사건이 최 대표를 자극했다. 평소 유기농 녹차의 안전성을 제대로 증명받고 싶었던 최 대표는 곧바로 FDA 안전성 테스트를 의뢰했고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증명을 받게 된 것이다. 최 대표는 "FDA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것은 미국 수출길도 함께 열렸다는 의미가 있다"며 "친환경 유기농 녹차재배는 우리 고장 녹차를 세계 명품으로 우뚝 서게 해 줄 것이다"고 말했다. /인헌주기자 ahj@kwangju.co.kr

선거구 획정 유탄 맞은 현역의원·예비후보들 지역구 선택 '신경전'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으로 지역구 조정 직격탄을 맞은 전남지역 일부 현역의원들과 예비후보들이 불만을 토로하며 지역구 변경 검토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2일 정개특위의 지역구 조정으로 기존 전남지역 선거구 가운데 담양·곡성·구례, 강진·장흥·영암, 해남·진도·완도, 장성·영광·함평, 광양시 등 6곳의 지역구가 새로 짜였다. 우선 강진·완도 지역구가 인구 하한선 미달로 해남·진도·완도와 강진·영암·장흥으로 분리됨에 따라 담양·완도를 기반으로 했던 현역의원들과 예비후보들은 해남·진도·완도로의 이동에 고심하고 있다. 이영호 의원(강진·완도)은 해남·완도·진도로 이동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완도를 지지기반으로 하는 김영록 전 전남부지사도 기존 강진·완도에서 해남·진도·완도로 바뀔 데 대해 강하게 반발 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남·진도의 표밭을 갈아온 현역의원들과 예비후보들은 기존의 지역구에 완도가 붙여진 데 대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경쟁 구도가 더욱 치열해진다. 지역구의 인구와 면적이 커지면서 표밭 갈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수엑스포특별법' 변질 통과

국회 본회의 국고지원 4천억 줄여... 성공 개최 차질 우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여수박람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으나 국회 농해수위 의결 과정에서 국가 지원 축소 방향으로 변질돼 성공 엑스포 개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당초 이 특별법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의 일정이 잡힘에 따라 22일 본회의에 상정,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특별법 상 '지원시설'을 당초 "박람회 관련 사업 시설"에서 "관광진흥법 제3조의 관광사업 시설, 박람회 주제 관련 연구 및 제조 시설"로 변경, 순천만 갯벌생태체험관(4천억원)에 대한 국고 지원을 불가능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또 박람회 지원 사업시행자 및 지원주체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낫춰 민자 유치 사업의 대외공신력을 떨어뜨렸으며 국고 지원의 범위를 '여수시 전체의 교통시설과 경관사업'에서 '박람회장 인근의 교통시설과 경관사업'으로 축소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박람회 직접 관련시설(전시시설, 접근교통시설 등)은 물론 지원시설에 대해서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아, 여수박람회 준비에는 다소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여수박람회와 관련해 국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박람회를 통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려는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면서 "차후라도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